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土)

3(日)



News

- 내년 건보료 6.5% 인상
광주시청사 파손 손배소
韓축구 오늘 베트남 공격

Jeollado

- 그 사람-백형조 前 지사

Entertainment

- 호남대생 스타 박보드레



- 2006 총무로 조연 열전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대추



남부대학교 and 전남과학대학 logos and contact info.



40억 아시아인 축제 막 올랐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5회 도하 아시아게임이 2일 새벽 화려하게 개막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광양항 등 물류운송 차질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항·인천항 등이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도 파업에 돌입.

하루 평균 6천200TEU의 화물이 반·출입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이날 화물차량 3천800여대의 발이 묶여 반·출입이 전면 중단됐다.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도 1일 광주 하남산단과 광양시 컨테이너 부두에서 각각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아!... 미셀위가 썼던 그 그림

순천 '어머니골프' 장갑 필요없는 그림美·日 등 300만개 수출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들의 경쟁장인 골프용품 업계에 우뚝 선 지방 중소기업이었다. 지난 1981년 순천시 장전동에 세워진 (주)어머니골프가 주인공이다.

최근에는 '투명 골프 그림'이란 획기적 발명으로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투명 그림은 이미 박세리와 미셀 위, 장정, 이마나, 박유나 등 국내외 프로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머니골프 남상기(50)대표가 개발한 일명 장갑이 필요 없는 그림 '씨탑'(SiTOP)이 골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씨탑'은 땀과 물에 미끄러지지 쉬운 일반 고무 그림과 달리 특수 우레탄 재질을 사용, 골프장갑을 끼지 않고 손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 샷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 대표는 지난 2003년 투명골프 그림

씨탑을 개발했고 지난 9월 미국 특허를 따냈다. 일본에 2년간 100만개를 수출했으며, 올해만도 100만개가 팔려나갔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 꾸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본사를 서울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권유에 그는 간단하게 대답한다. 어머니골프 본사 자리가 자신의 텃자리라고 향이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들이 거대기업과 경쟁하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 대표는 씨탑을 개발하는 7년 동안 이윤의 대부분을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 완벽한 투명그림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금형만 100개가 넘으며, 개발비는 20억원이 넘게 투자됐다.

특히 투명그림은 검은색 일색인 다른 그림과 달리 투명그림 내부를 개인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는 패션제품이라는 데서 여성이나 젊은 골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남상기 대표는 "언젠가는 내가 만든 투명그림이 검정색 고무 그림을 모두 잡아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기 어머니골프 대표가 세계 특허를 획득한 투명그림을 골퍼채에 씌우고 있다.

김의장 "盧 발언은 제2대연정론"

청와대 "대통령 흔들기 하지말라"

黨-靑 전면전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당 반대'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대 의장이 1일 '제2의 대연정 발언'이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당·청간 갈등이 확산일로로 치닫하고 있다.

그러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후 "노 대통령은 통합신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 지역구도를 반대하는 것이다"며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신당을 지역당으로 비난하는 것은 제2의 대연정 발언"이라며 "대연정을 추진하며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면 권력을 통째로 넘겨도 좋다'는 발언이 우리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지지층을 와해시킨 일을 기억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당이 나갈 길은 당이 정할 것"이라

며 "당내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가슴 속에 거두는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당이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면 당원들은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통합신당 논의는 초심으로 돌아가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모든 평화세력을 재결집하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자는 얘기"라며 "이런 노력을 지역당 회귀로 규정하는 것은 다시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완 실장은 이날 "노 대통령은 정계개편, 통합신당 문제가 열린우리당의 법적, 역사적, 정책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역주의, 지역당으로 회귀하는 통합신당 논의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광주공연 12월 16일(토) 오후 7:30 광주영주체육관

Large advertisement for 'Upgrade 세기보청기' (Upgrade Hearing Aid) featuring '신비' (Mystery) technology. Includes images of hearing aids and promotional text.